中源大學報

The Jungwon University Times

제14호 2017년 7월 27일(목)/계간

발행인 · 김두년 | 발행처 · 중원대학교 홍보팀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85 중원대학교



지면안내

Campus News

02 개교 8주년 기념식 개최

02 김두관 국회의원 초청특강 열어

02 도서관 '2017 길 위의 인문학' 공모 사업 선정

02 아름다운 캠퍼스로 영화 ·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받는 중원대 캠퍼스

03 그린캠퍼스 사업단, 지역사회 녹색문화 봉사활동 전개

03 모의비행훈련장치, 국토부에서 '가' 등급 승인받아

03 우리대학 '치매극복 선도대학 현판식' 가져

03 학교 단신

Student news

04 협약식

04 여러분의 날개는 크기가 얼마나 되나요?

05 경찰행정학과 제8기 캠퍼스 안전 순찰대 발대식 개최

05 고나혜 학우, 대학 대항 골프대회 우승!

05 항공서비스학과, 해외 인턴십 5명 합격!

05 연극영화학과 제24회 정기공연 '물고기의 축제' 성공적으로 마쳐

JWU in 人

06 푸른 잔디위에서 딱딱한 책상 앞으로

07 동부리 6형제

08 Inx 인엑스 데뷔 구본국 학우 Inx 아이돌 데뷔

중원 愛

09 당장 나부터 귀 기울여 볼래요

09 나는 중원대생이다 –유학생 2편–

Special

10 도전은 젊음의 특권입니다 – 김두관 국회의원

10 주목! 신선학과 탐방 – 말산업융합학과

11 인기강의

12 · 13 신나게 세계로 계획없이

13 중원인들의 태양을 피하는 방법

JWU in life

14 · 15 · 16 나 혼자 산다

16 싱글라이프 – 프로 혼자러

17 셀프 인테리어

17 중원 포토존

Culture

18 덕후의 발견

19 커플템

19 학과잠바 리포트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개교 8주년 기념식 개최



▲ 8주년 개교기념을 맞이하여 교직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지난 5월 2일 교내 CEO룸에서 개교 8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날 기념식은 주요 보직자를 비롯해 유관기관 인사들과, 교직원 학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 졌으며, 교직원 및 유관기관 인사들에 대한 공로상을 수여했다.

기념행사는 개회식, 국민의례, 총장기념사, 이사장축사, 공로상 표창 및 감사패 수여, 교가제창, 폐회식 순으로 진행됐다.

공로상은 지역과 대학발전에 기여한 괴산군사회단체장협의회 성양수 회장에게 수여됐다.

안병환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대학은 개교 이래 8년 동안 교육목표인 창조적 전문인, 개방적 문화인, 실천적 봉사인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발전과 노력으로 충북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는 세계적 대학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대학은 개교 8주년을 맞아 학교발전과 학생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4월분 급여부터 일정부분을 자발적으로 발전기금으로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정호룡 기자 jhr13135@jwu.ac.kr

김두관 국회의원 초청특강 열어



▲김두관 국회의원이 CEO룸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우리대학의 지난 6월 8일 오후 2시 CEO룸에서 김두관 국회의원 초청특강을 개최했다. 교직원 및 재학생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특강은 '현대 정치의 방향'이란 주제로 젊은 대학생들의 정치참여 독려와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강 장에는 많은 학생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으며 학생들은 뚜렷한 소신정치 인생을 보여준 김의원에게 여러 차례의 박수를 보냈다.

김두관 의원은 "중원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특강이 됐으면 한다"며 "부족하지만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끊임없이 도전해 왔기 때문이다. 여러분들도 꿈을 향해 도전하는 멋진 청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지연 인재양성지원센터장은 "이번 특강이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길 바란다"며 "이런 기회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은 등록금이 없어 2년 동안 농사를 짓다가 전문대에 진학하는 등 어려웠던 환경에서 자라온 인물로 지역주의 타파,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등 서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 도전해 온 도전의 아이콘이다. 현재 김포시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종학 기자 jjh7689@jwu.ac.kr

▶관련기사 10면

도서관

'2017 길 위의 인문학' 공모 사업 선정



▲도서관 사회과학 자료실 전경.

우리대학 도서관이 5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17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2차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길 위의 인문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가 인문학을 통해 삶의 가치를 향상하고 향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책, 현장, 사람이 만나는 독서문화의 장을 구축하고 확산하고자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브랜드화 된 인문학 사업이다.

올해 1, 2차 사업에 전국 387개 도서관이 선정된 가운데 충북에는 11개 도서관이 선정되었다. 충북지역에서 대학 도서관이 참여하고 선정된 것은 우리대학이 유일하며 앞으로 정부로부터 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학술정보센터는 '책 속에 담아내는 살아온 이야기'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괴산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함께 읽고, 토론하고, 도서관과 박물관을 체험하며, 문학치료와 자서전 쓰기를 통해 자신과 주변을 살펴보는 인문학적 삶의 성찰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프로그램 마무리로 자서전 자료집을 발간 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운영에는 문학치료와 글쓰기 전문가로 창의개발센터 박찬흥교수가 참여하며, 지역향토 작가, 지역 작은도서관 운영자 등도 초빙한다.

교육은 6월 21부터 11월 15일까지 매주 수요일 2시간(18시 30분~20시 30분)씩 총 20회차, 40시간이 진행된다.

〈편집부〉

아름다운 캠퍼스로
영화 ·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받는 중원대 캠퍼스

우리대학 캠퍼스가 영화·드라마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 12월에 개봉될 170억 규모의 제작비를 들인 영화가 촬영 됐다.

특히 2014년에 촬영된 드라마 닥터이방인은 당시 시청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이외에도 음료광고 cf등 촬영지로 많은 제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중원대 캠퍼스가 촬영지로 계속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전통양식이 가미된 웅장한 건물과 천연잔디 골프장이 캠퍼스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 아름다운 전경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촬영한 영화는 정문과 본관, 내·외부, 골프장 등 교내 캠퍼스 곳곳이 촬영 장소로 활용됐다.

또한 닥터이방인의 주 촬영 배경이 된 광관루, 도서관, 박물관은 학교 방문객들에게 인기 있는 명소가 되었다. 드라마에서 정자가 보이는 테라스에서 주인공 이종석이 진세연에게 프로포즈한 장면은 명장면으로 손꼽히기도 했다.

중원대 관계자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캠퍼스의 좋은 명소를 대중들에게 알리게 돼서 마케팅에 효과적이다"며 "이번 영화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방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SSSSSSSSSSSSS



▲SSSSSSSSSSSSSSSSSSS

한편, 중원대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하는 '2014년 그린캠퍼스'에 선정되어 충북지역 환경 친화적인 대학 캠퍼스로 주목 받고 있다.

〈편집부〉

그린캠퍼스 사업단, 지역사회 녹색문화 봉사활동 전개

“지역사회 유적지 환경 정화활동 전개해 괴산지역 환경까지 지켜나갈 것”



▲그린캠퍼스 사업단 이홍찬 단장(왼쪽 아홉 번째)을 비롯한 학생들이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대학 그린캠퍼스사업단이 4월 26일 괴산 연풍 일원에서 이홍찬 단장(그린캠퍼스사업단)을 비롯한 중원대 학생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괴산연풍의 유적지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대학생들이 지역의 소중한 문화재를 아끼고 체험하면서 학문과 예술의 근본정신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며, 연풍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리는 ‘상암사지 학술자료 특별전’ 일정과 맞춰서 진행되었다.

학생들의 유적지 주변 환경정화 활동은 단원김홍도 특별전 관람을 마치고 김홍도의 집무실 ‘풍락헌’ 주변, 연풍 초등학교, 단원 김홍도 길, 수옥폭보, 마애이불병좌상등의 순서로 봉사 활동을 펼쳤다.

김민기 학생(신재생에너지지원학과 15학번)은 "처음에는 좋은 공기 마시면서 힐링하자는 생각으로 왔지만 역사공부도 하고 기대이상의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홍찬 단장은 “괴산지역에 역사 유적지가 많은데 주변환경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아쉬웠다. 이렇게 학생들과 같이 봉사도 하고 깨끗하게 정돈 된 유적지 주변을 보니 뿌듯하다”며 “앞으로 그린캠퍼스사업단이 지역사회 유적지 환경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유적지는 물론 괴산지역의 환경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기자 qkrtngus2015@jwu.ac.kr

모의비행훈련장치, 국토부에서 ‘가’ 등급 승인받아

지난 4월 21일 항공운항학과 ‘MPG10 모의비행훈련장치’가 국토부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검사에서 ‘가’ 등급(FAA Level 4) 적합 판정을 받았다.

모의비행훈련장치는 프랑스 ALSIM사의 최첨단 제품으로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감항검사를 받아 안전한 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공식 승인받았다.

앞으로 항공운항학과 학생들은 훈련장치를 탑승할 경우 자가용 조종 자격 취득 시 5시간 까지, 사업용 조종자격 취득 시 10시간까지 실제 비행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오도연(항공운항학과 2학년) 학생은 “실제 비행을 하기 전 실습할 수 있어서 교육생들이 보다 항공기와 친근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며 “모의 비행을 통해 좀 더 안전한 항공운항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항공운항학과 학생들이 모의비행훈련 실습을 하고 있다.(왼쪽 사진). 항공운항학과 ALSIM 사의 최첨단 모의비행훈련장치.(오른쪽 사진)

정영진 교수(항공운항학과 학과장)는 “학생들이 실습하고 있는 모의비행훈련장치는 A320 여객기등 10개 기종을 훈련할 수 있는 우수한 훈련장비이다”라며 “실습을 통해 조종사로서 기량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최고의 실습 환경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항공운항학과는 지난해 2월 무안국제공항에 비행교육원을 설립하고 세계 3대 경비행기 브랜드인 세스나 항공기 4대로 비행실습을 하고 있다. 또한 항공운항학과 최초로 1학년부터 정규 교과과정에 모의비행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군조종장학생도 배출하는 등 충북지역 항공대학으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정종학 기자 jjh7689@jwu.ac.kr

우리대학 ‘치매극복 선도대학 현판식’ 가져



▲치매선도대학 현판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세 번째 김시경 충북광역치매센터장

우리대학이 지난 3월 6일 충북지역 대학교 중 최초로 치매극복 선도대학으로 지정돼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중원대 총장을 비롯한 충북광역치매센터 김시경 센터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하였다. 치매극복 선도대학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관리하는 인증번호를 부여받아 지역사회에서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일을 하게 된다.

앞으로 우리대학은 치매인식개선 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에서 관리하는 인증번호를 부여받고 치매파트너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또한 교직원과 재학생이 치매예방에 적극 참여하고 치매파트너 교육을 받은 중원대 재학생은 봉사시간 인정과 파트너 수료증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김시경 센터장은 “중원대학교가 충북지역 치매인식개선을 위해 선두에 나서줘서 감사하다. 나아가 치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인력들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편집부〉

학교단신

교양학부 황연화 교수, ‘2017 제4회 코리아 세계미술공모전’ 그랑프리 수상

황연화 교수(교양학부)가 6월 17일 ‘2017 제4회 코리아 세계미술공모전’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하였다. ‘2017 제4회 코리아 세계미술공모전 및 아트인 동행전 국제특별전’은 국제연합 아시아국제미술교류협회가 주최하고 충주시가 후원하는 공모전이다.

중원대 괴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날 큰잔치 체험부스 운영

우리대학이 위탁 운영하는 괴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난 5월 5일 ‘2017년 제 10회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에 참여하여 ‘식품안전의 날’ 홍보 및 ‘당 나트륨 줄이기’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다. 본 행사에서는 어린이날 및 식품안전의 날을 맞이하여 괴산군 학부모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채소, 과일 부채 만들기, 저염식 체험 및 식품 구성자전거 알아보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직장예비군대대, 충청북도 도지사 부대표창 수여

4월 11일『중원대학교 대대』가 창설 10개월 만에 정기감사 우수 및 예비군 훈련 및 지원 유공으로 충청북도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다. 작전사령부 37사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대학직장 예비군부대 정기감사는 동원□향방작전 준비태세, 예비군 편성□자원관리, 예비군 교육훈련, 대학직장 방호계획 등에 중점을 두고 종합평가 하는 것으로 중원대가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우수 예비군대대」로 선정되었다.

정부지원 우수자비 장학생 선발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박선화, PIAO SHANHUA(한국학과, 2학년, 중국)이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하는 ‘GKS 외국인 우수자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선발된 학생들은 앞으로 1년간 1인당 600만원(월 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PHOTO NEWS

협약식



▲ 지난 6월 29일 충북농업기술원과 유기농특화도 충북을 달성 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지난 3월 22일 교무회의실에서 ㈜케이에어항공과 항공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 증평군과 양 기관의 정보 공유와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 극동대학과 교육자원 교류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 지난 6월 14일 ㈜인터컨스텍과 고급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제 6대 총학생회 '비상'

여러분의 날개는 크기가 얼마나 되나요?

비상 VISANG

1. 높이 날아오름
2. 뜻밖의 긴급한 사태
3. 평범하지 아니하고 뛰어남



'비상'은 6대 총학생회의 새 이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뛰어난 대처 능력으로 학생들을 위해 움직이겠다는 그들의 포부가 느껴집니다. 바로 6대 총학생회 '비상'입니다. 그 날개 짓이 시작은 미비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투표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봄 학기가 끝나가는 지금, '비상'하기 위해 얼만큼 날개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1. '비상'이 내건 공약을 바탕으로 그 동안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지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총학생회 '비상'입니다.

- 공약 1: 매월 25일 통장 내역 공개 (이행완료 5/25)
- 공약 2: 안전 취약 시설 안전 강화 시설물 설치: 스탠드 라이트 – 미끄럼 방지 패드 (이행완료 5/17)
- 공약 3: 생활관 편의 시설 증진 : 전자레인지 (이행완료 5/17)
- 공약 4: 괴산 · 증평 상권 협약 (진행중)
- 공약 5: 학기 초 학기 말 총학생회 간담회 (진행중)

2. 현재 총학생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5월 (성년의 날 , 단대체전 총학 이벤트), 6월 (기말고사 이벤트 학생 간담회) 그리고 다음 학기에 있을 축제입니다. 정해져있는 예산 내로 최대한 경제적이면서도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꽉~ 찬 축제 만들어보겠습니다!

3. 총학생회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그 어떤 때보다도 학우들의 고충을 듣고 그 불편함을 해소시켜줬을 때입니다. 그리고 저희 '비상'이 노력하는 만큼, 학교가 우리 학생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직접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꼭 알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알아주고 표현해줄 때에도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위치임을 알기에 끊임없이 학우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총학생회 활동을 마치는 그 때, 1년 동안 걸어온 발자국이 헛되지 않기를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에게 단 하나의 추억거리라도 만들어주었기를 바라며 2학기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뜻 한데 모아 꿈을 펼치는 중원대학교 총학생회 "비상" 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민기자 justdoit@jwu.ac.kr

중원대학보를 함께 제작할 기자를 모집합니다

go



1. 모집대상	중원대학교 재학생 (학년제한 없음)
2. 자격요건	학점 2.75이상 (신입생은 해당사항 없음)
3. 모집인원	4명
4. 제출서류	–언론장학생 지원서 (지원서는 홈페이지에 첨부한 서식으로 작성)
5. 제출기한	–2017. 9. 8(금) 오후 6시까지 제출 – E–mail 제출 zooyeun@jwu.ac.kr (언론장학기자 지원자 '홍길동'의 제목으로 제출)
6. 활동혜택	1. 언론장학금, 취재비, 명함, 언론기자 장학증서 2. 취업 면접시 스펙 가산점으로 적용되는 기자 경험
신청문의	전화 010–7475–9202(국장) 또는 카카오톡! 날리기 oswin6

장래에 언론계나 홍보업계에서 일하고 싶은 학생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모교를 사랑하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궁금한 점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행정학과 제8기 캠퍼스 안전 순찰대 발대식 개최



▲캠퍼스 안전순찰대 발대식을 마치고 식에 참여한 교직원 및 학생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가운데 조성훈 괴산경찰서장

우리대학 경찰행정학과가 4월 23일 PT룸에서 괴산경찰서장, 경찰행정학부 재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캠퍼스 안전 순찰대 발대식"을 가졌다.

총 48명으로 구성된 '중원대 캠퍼스 안전 순찰대'는 괴산경찰서 현역 경찰관과 함께 경찰의 역할 중 치안서비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순찰활동 등 실무 경험을 미리 체험해보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또한 발대식에서는 제7기 우수활동자인 경찰행정학과 학생 김경환, 김재헌, 김지수, 이승희 학생이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상하였다.

지난 2013년에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캠퍼스 안전 순찰대는 학교폭력 예방과, 괴산의 야간 취약지역 순찰활동 등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호평을 받았다.

조성호 괴산경찰서장은 "중원대 경찰행정학과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해마다 소중한 인재들을 지원해줘서 감사하다"며 "이번 경험을 통해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얻어갈 수 있길 바라며, 무엇보다 안전하게 순찰대 활동을 마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는 2010년 신설돼 2014년도에 경찰공무원 첫 합격자가 나온 이후 꾸준히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 배정민기자 justdoit@jwu.ac.kr

고나혜, 대학 대항 골프대회 우승!



▲고나혜 학생이 우승트로피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대학 고나혜(레저스포츠학과 1학년)학생이 제34회 회장배 대학 대항 골프대회 여자프로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다.

제34회 회장배 대학 대항 골프대회는 지난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제주 크라운컨트리클럽에서 진행되었다.

2017 KLPGA 1부 투어 시드권자인 고나혜 학생은 "중원대 입학 첫 해부터 좋은 성적을 거둬 기쁘다"며 "우승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준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금숙 지도교수는 "고나혜 학생의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학생들이 교내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훌륭한 실습장을 지원해준 학교 측에 감사하며, 학생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항공서비스학과, 해외 인턴십 5명 합격!

우리대학 항공서비스학과 3학년 5명이 해외 인턴십에 최종 합격했다.

항공서비스학과 3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한 인턴십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현지 익스피디아항공사에 윤진주, 김대근, 최지혜, 조아란(15학번), 에어아시아 공항 지상직에 염해영(15학번)이 최종합격하였다.

이번 과정은 익스피디아 6명, 에어아시아 2명이 지원해 말레이시아 현지 업체와 전화 인터뷰 및 고객 응대 롤플레이 면접으로 선발됐다.

합격한 학생들은 익스피디아 8개월, 에어아시아 1년 동안 인터십 활동을 할 예정이며, 현지 업체와 연계된 어학원을 통하여 영어 연수 후 수료증 취득 및 중국어 HKS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도 참여한다.

이연숙 학과장은"지속적인 해외 인턴십 및 취업에 관련된 학생 교육 및 다양한 취업처 확보에 주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항공서비스학과 Mock-up실습실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서비스학과 학생들.

해외 인턴십은 영어, 중국어의 언어 실력 향상 및 해외 서비스 업체의 경험으로 향후 취업에 유리한 경력으로 작용한다. 또한 본인이 원할 경우 인턴십사원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편집부〉

연극영화학과 제24회 정기공연 '물고기의 축제' 성공적으로 마쳐

중원대학교 연극영화학과의 제24회 정기공연이자 제25회 젊은연극제 참가작인 '물고기의 축제'가 지난 5월 31일 ~ 6월 1일, 6월 19일 ~ 20일 두 차례에 걸쳐 교내공연과 서울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중원소극장에서 진행된 이번 교내공연은 매 회 전 객석이 가득찰 정도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이번 공연작 '물고기의 축제(유미리 원작)'는 12년 전 와해되어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막내아들 후유오의 죽음으로 다시 모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 서로에 대해 표현하지 못했던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내용의 희곡이다.

이번 공연을 연출한 한수경 학생은 "'물고기의 축제' 작품을 처음 접하고 개인보다 단체를 생각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우리 학과의 기본적인 이념과 잘 맞는 작품이라 생각했다"며 "연극 연출이 처음이라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교수님들과 재학생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중원대 연극영화학과는 매년 연 8회 이상의 정기공연과 영화제를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괴산지역 청소년, 노인, 다문화가정 들을 위해 '찾아가는-찾아오는 연극 영화' 행사를 마련해 재능기부를 꾸준히 하고 있다.

정종학 기자 jjh7689@jwu.ac.kr



▲연극영화학과 학생들이 공연을 마치고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제14호 2017년 7월 27일 목요일

푸른 잔디위에서 딱딱한 책상 앞으로



정성학(스포츠건강의학과 10학번)동문, 석사학위 취득 및 NATA Athletic trainer* 시험통과

일반적으로 '운동선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공부와는 거리가 먼, 단순한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여기 축구장에서 공만 차던 사람이 책상 앞에 앉아 펜을 잡고 또 다른 꿈을 실현하고 있다. 그것도 머나먼 타국 땅에서 말이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 꿈을 이루고 있는 정성학(이하 정 동문) 동문을 JR 기자가 face time을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NATA Athletic trainer : 미국 국가공인 선수트레이너 시험으로 교육기관이 승인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커리큘럼과 일정시간의 현장실습시간을 이수해야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운동선수에서 새로운 길로 들어서다

중원대학교 스포츠건강의학과 졸업생 정 동문은 어릴 적부터 운동을 쉽게 접했고 유도선수 출신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운동신경을 물려받았다. 그러다 아버지의 지인의 소개로 축구선수의 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취미로 축구를 했죠. 운동을 워낙 좋아했으니까요. 그러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정식으로 축구를 배우고 싶어 축구부에 들어갔어요" 그는 그렇게 중·고등학교 6년 동안 학업과 운동 모두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학업에 대한 아쉬움이 항상 있었다. "축구를 좋아했지만 축구뿐 아니라 학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공부에 전념하고 축구를 그만두었죠" 그렇게 그는 고등학교 3학년부터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해 체육 특기자가 아닌 중원대학교 스포츠건강의학과로 진학을 했다.

중원대에서 꿈을 다지다

스포츠건강의학과에 진학한 정 동문은 선수트레이너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던 중 이장원 지도교수님의 권유로 스포츠의학과 선수트레이너 문화가 좀 더 발전한 미국에서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 "CMP 시스템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교수님들과의 소통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진로와 목표를 설정했죠" 그는 교수님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학 중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유현승 교수님의 도움으로 K리그 프로 축구팀 부천 FC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실전 경험도 미국에서의 현장실습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미국 현지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에 대한 어려움에 있어서도 중원대학교에서의 수업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학부시절 전공 수업을 할 때 교수님들이 영어로 수업을 하고 원서로 해부학, 생물학, 기능학 등을 공부한 것이 당시에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미국 현지에서 큰 어려움 없이 선수들과 직접 부딪히며 배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한다.

미국유학에서 목표에 도달하기 까지

정 동문은 미국 유학의 장점은 이론과 현장실습 기회, 그리고 선진화된 시설, 체계 등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점을 꼽았다. 물론 단점도 있었다. "단점은 학비와 생활비가 많이 든다는 점과 영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면 아무리 좋은 교육 시스템이라도 따라갈 수 없다는 점,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것은 유학생 신분으로 인해 생기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는 무턱대고 유학을 결정하지 말고 철저한 준비를 해서 유학을 떠나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누구나 공부를 하다보면 힘든 순간이 있다. 더군다나 홀로 떨어진 타지에서는 더 할 것이다. 정 동문은 그럴 때 가족들을 생각했다고 한다. "미국에 온 첫 해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낯설기도 했고 모든 것을 저 혼자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럴 때 마다 한국에서 저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부모님 생각을 많이 했죠.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가족의 힘으로 힘든 유학 생활을 이겨내고 목표를 향해 한 발씩 전진하고 있다.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도전하는 후배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

"누구나 쉽게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꿈에 다가가기 위해 어쩌면 가장 진부한 말이지만 '노력'은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노력이라고 하면 '역시 힘든 일이구나'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럴 때는 노력이라는 단어도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의 꿈만 생각하고 계속 전진하면 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꿈에 다가와 있을 겁니다. 후배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기를 희망합니다"라며 항상 최선을 다해 도전하기를 당부했다.

지금 중원대를 다니고 있는 학우들은 도전해 볼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 정 동문의 말처럼 자신이 해내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꿈은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학우의 도전을 응원한다. P.S. 000,000,000 교수님께 꼭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정종학 기자 jjh7689@jwu.ac.kr



동부리 6형제

: 너희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아름다웠다.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지내던 학생들이 같은 학교 같은 학과에 그것도 6명이 입학을 하는 사례를 들어 보셨습니까? 아마 주위에 없을껄요? 그렇다면 독수리 5형제보다 우정이 더 돈독해 보이는 동부리 6형제들의 진솔한 우정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Q.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12학번 신재생에너지학과 동부리 6형제 (오른쪽 위 사진) 손기철, 도영빈, 윤성호, 임태주, 황석호, 장유태입니다.

Q. 6명이 같이 입학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원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입학 후 신입생 OT를 가니까 뭔가 낯익은 얼굴들이 있는 거예요. 서로 보고 깜짝 놀라고 좋아서 웃음꽃이 만개 했죠. 진짜 기쁘더라고요!

Q. 중원대학교 신재생에너지학과에 오게 된 이유가 있나요?

황 저는 중학생 때부터 2차 에너지와 대체 에너지 등에 관심이 많았고 전망이 있는 학과라 생각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도 저도 신재생에너지가 전망이 있는 분야 중 하나라는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오게 되었어요.

장 신재생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했고 한국 전력 입사가 꿈이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임 저는 아버지의 영향이 무척 컸어요. 아버지께서 관련된 직종에 종사 하셔서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접했어요. 그러다 신재생에너지학과에 대해 들었고 저에게 잘 맞을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죠.

손 저는 문과였는데 제가 정말 존경하던 선생님의 이과로의 전향 추천과 또 그 중 신재생에너지가 미래에 촉망받는 분야가 될 것 같아 오게 됐습니다.

윤 우연히 네이버 기사를 보았는데 미래의 신재생에너지가 나중에 촉망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 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중원대학교에 처음 왔을 때 소감은 어땠나요?

전원 다들 보시다시피 건물이 누가 봐도 좋아 보이잖아요? 또 전원 기숙사라는 점이 가장 끌렸는데 그 당시에는 기숙사시설이 좋았고 학과 구별 없이 친한 친구들과 함께 쓸 수 있다는 것도 좋았고, 친한 친구들과 같이 쓰다 보니 침대도 모으고 옷장도 모으고 컴퓨터만 다 모아 컴퓨터 방을 만들며 재미있는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Q. 6명이 함께한 특별한 추억이 있는지?

전원 오늘이 아닐까 생각해요. 사실 6명이 다 같이 모이기가 꽤 힘들어요. 각자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인터뷰를 계기로 오랜만에 함께 모여 얘기도 하고 사진도 찍으니 새로운 추억이 될 것 같아요.

Q. 6명 중에 소위 말하는 과 탑이나 성적이 많이 오른 친구들이 있는데 그 계기는 무엇인가요?

손 제가 알기론 영빈이가 그다지 뛰어난 편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학기 먼저 복학해서 과에서 2등을 했더라고요.(웃음) 그래서인지 갑자기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영빈이가 저한테도 할 수 있다고 많이 조언해주고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 덕분에 지난 학기 과 탑을 할 수 있었어요.

도 군필자 복학생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 갔다 오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의욕이 굉장히 넘쳤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라식수술도 해줄 테니 공부 좀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눈이 콤플렉스였거든요. 그래서 게임도 접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2등도 하게 된 것 같아요.

Q. 친구들끼리 크게 다툰 적은 없나요?

전원 저희는 다 평화주의자라서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1~2년 된 사이도 아니고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길게는 8년, 짧게는 6년 이렇게 오래 되다보니 서로 성격도 알고 서로 배려를 하다 보니 서운한 것이 있어도 바로바로 풀고 무엇보다 다들 심성이 착해서 싸울 일도 없는 것 같아요.(웃음)

Q. 졸업 후 취업(진로 계획)?

도 대학원을 가기위해 여름방학 때 토익점수 맞추고 2학기에 고려대학교 대학원 신소재공학과를 지원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토익은 당연히 만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 저는 전기 기사 자격증을 따는 것이 1차 목표고요. 저의 꿈이 한국 전력 입사여서 꼭 이루어으면 해요! 들어가기 어려워도 꿈은 높게 잡을수록 좋은 거잖아요?(웃음)

장 저도 태주처럼 전기 기사 자격증 공부하고 한국 전력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친구와 같이 입사한다면 정말 금상첨화죠!

황 저는 예전부터 창업에 관심이 있었어요. 정육식당을 차려 볼까 생각하고 있고, 또 우연치 않게 지인 중에 관련 종사자분이 있으셔서 그 분에게 배우면서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자세한 것은 창업 비밀입니다.(웃음)

손 저는 일단 3학년 때 산업기사 취득하고 전기기사 자격증은 4학년 때부터 응시가 가능해서 필기만 합격한 상태에요. 최종목표는 태주, 유태와 같이 한국 전력에 입사하는 것이에요. 셋이 손잡고 한전에 들어가고 싶어요!(웃음)

윤 저 역시도 전기기사를 취득하여 인천교통공사에 입사하는 것이 최종목표입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 잘되어 후배들한테 존경받는 중원대학교 졸업생이 되고 싶습니다.

Q. 새내기들에게 조언 한 마디 한다면?

도 제 경험 상 1학년 때는 학점관리 어느 정도 하고 책을 많이 읽는 거에 비중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책을 많이 읽으면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서 책 읽기를 꼭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군 복무할 때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임 저는 자퇴를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어요. 2학년이 끝나고 자퇴 생각을 했는데 군복무 후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더라도 이것도 못하면 사회 나가서 어떻게 하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졸업 후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서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일단 학업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장 인생을 급하게 살지 말자! 저의 좌우명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저의 마인드이기도 해서 꼭 어느 하나에 매달려 조급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급하게 달리다 보면 언젠가 지치기 마련이잖아요? 아! 밥은 꼭 챙겨 먹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해서 꼭 강조하고 싶네요.(웃음)

황 대학교 왔다고 마냥 놀지 말고 부모님께서 내주신 소중한 등록금이니까 대학에서 최대한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손 저는 1학년 때 많이 노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나중을 위해 후회하지 말고 할 건 하면서 놀기 바라요. 그러다 2학년이 되면 스스로 깨달을 거예요. 스스로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윤 대부분의 사람들이 '1학년 때는 노는거다, 즐기는 거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1학년 때 놀면서 하고 싶은 거 다하는데 신분이 학생인 만큼 공부 할 땐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놀 땐 놀고 공부 할 땐 공부하고 그러면 정말 나중에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기자 코멘트

동부리 6형제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셨나요? 꿈과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공부든 스펙이든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꿈 혹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자신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뉴턴의 말처럼 학우 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원하고자하는 것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룡 기자 jhr13135@jwu.ac.kr

제14호 2017년 7월 27일 목요일

InX



여러분 인엑스(Inx)라는 아이돌 그룹을 아시나요? 우리학교 연극영화학과 15학번 구본국 학우가 멤버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이돌이 바로 옆에 있었다니...우리 대학에서도 아이돌을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는 구본국 학우의 속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중학교 댄스 부 입단 후 많은 무대를 경험하면서 성취감, 관객의 호응에 대한 짜릿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감동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 오디션을 많이 보러 다녀 지금의 인엑스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2. 팀 이름 InX 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인엑스(inx)의 의미는 in+(x) 즉, inx의 x는 함수X를 사용하여, '내 안의 미지수' 멤버 다섯 명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3. 학교 생활하면서 배운 점이 있다면?

무엇보다 저희 연극영화학과하면 '인사' 아시죠? 선배님 지나가시면 100M 앞에서도 인사하잖아요(웃음). 저도 몸에 배어서 그런지 가수 생활 하면서도 인사가 습관이 되었어요. 덕분에 가수 선배님들에게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가 기숙형 학교잖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단체 생활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화해 하기도 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법을 많이 배운거 같아요. 이런 경험이 단체 생활이나 사회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4. 학교생활을 많이 못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이른 나이에 데뷔를 하다 보니 학교에도 자주 못가고 친구들도 자주 못 보게 돼서 아쉽죠. 얼마 전까지 친구들과 같이 수업도 듣고 과제도 하면서 놀기도 했는데 이제는 자주 못 하네요. 그래서 저희 학과 동기나 후배들이 생각이 많이 나서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연락하면서 챙겨주고 있습니다.

5.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현재 두 번째 디지털 싱글 '2gether' 앨범 활동을 마치고 다음 앨범준비와 동시에 일본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인엑스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 많이 지켜봐주시고 사랑해주세요!

6. 마지막으로 학우들에게 한마디.

안녕하십니까 중원대학교 연극영화학과 15학번 4기 구본국입니다. 이번에 공연하는 '물고기의 축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학우들의 열정을 느꼈습니다. 이번 젊은 연극제에서 중원대 연극영화학과의 이름을 드높이고, 마지막 공연까지 열정 넘치는 모습으로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선배님들 후배님들 그리고 동기들 사랑합니다. 항상 한 발 뒤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중원대학교 연극영화학과 화이팅! 감사합니다.

정호룡 기자 jhr13135@jwu.ac.kr

ENGLISH CAFE에 드루와



조별과제할 공간이 없다고? 친구들과 설탕물 한잔 하며 얘기를 나눌 곳을 찾는다고?
고민할게 뭐가 있어 잉글리시 카페로 오세요!



친구들과 오순도순 모여 보드게임 한 판 할 곳을 찾는다고? 각종 카드게임부터
브루마블, 클루, 마작, 다트 등 다양한 게임을 카페에서 무료로 사용가능!

학업에 지친 당신! 달달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느끼고 싶나요?
중원대생이라면 1인 2잔까지 다양한 종류의 차와 코코아, 음료수를 무료로 제공!

친구와 함께 탁구를 치고 싶나요? 연인과 함께 포켓볼을 치면서 데이트 할 장소를 찾나요?
고민할게 뭐가 있어 잉글리시 카페로 오세요!

맨날 책으로만 공부하는 영어가 지겨울 땐? 외국인 교환학생들과 외국인 교수님들이 모이는
Hot place 잉글리시 카페! 언제든지 프리토킹이 가능하며, 원하는 교수님과 1:1 튜더링공부도 신청가능!

OPEN
월요일에서 금요일
15:00 ~ 22:30 까지
수 많은 혜택이 있는
잉글리시 카페!
위치 : 대외협력센터 옆

당장 나부터 귀 기울여볼래요



어딘가가 불편한 친구는 옆 반이든 학교 어딘가에 늘 꼭 한 명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보면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늘 옆에 있었지요. '장애'라는 것이 그리도 가까이 있었건만 그들에게 얼마나 무심했으며 그들을 그냥 지나쳐왔는지, 돌이켜보면 정말 많이 부끄러운 지난날이네요. 우리 중원대학교에도 장애를 가진 학우가 바로 우리 옆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그들에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답니다! 그 경청의 시작을 함께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중원대학교 학생기자 배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학과 16학번 김규원입니다.

배기자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점들이 많을 텐데, 그 중 딱 하나만 꼽으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김규원

아무래도 저는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까 손잡이가 없는 것이 가장 불편한 것 같습니다. 수업을 갈 때에도 웬만하면 계단으로 걸어 다니려고 노력하는데 계단에 손잡이가 없어서 이동하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손잡이가 없으면 이동이 아예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지만, 저와 같이 다리가 불편해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들에게는 손잡이가 많은 역할을 합니다.

배기자

그러게요 정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한 군데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원 학생은 '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규원

아주 사소한 행동이라도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자체로도 큰 따뜻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배려'라는 단어로 표현하지요. 하지만 때로는 그 마음이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안 좋게 할 수도 있답니다. 신체에 장애를 갖고 있고 비장애인보다 불편한 것은 맞지만, 무조건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는 것을 바라는 장애인은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배기자

배려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나저나 어제 연락했을 때 학원에서 오는 길이었죠?

김규원

네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나중에 3학년 4학년 때부터 준비하기 시작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답니다. 사실 어렸을 때부터 꿈이 사회복지사였어요. 사회복지를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에 공무원이 되려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답니다.

배기자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김규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비장애인과 달리 어딘가가 좀 불편하고 아픈 것, 딱 그거 하나 뿐이에요. 그 외에 진로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꿈에 대한 열정, 용기 이런 것들은 다 똑같아요. 장애인을 보면, '나와는 어딘가가 다르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조금씩 인식을 달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딘가가 불편할 뿐, 나와는 다를 바가 없는 사람' 으로 생각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은 단순히 보는 곳이 다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면 당장 나부터 그들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정민기자 justdoit@jwu.ac.kr

나는 중원대생이다 – 유학생 2편 –



산업디자인학과
17학번 전동원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유학 온 산업디자인학과 17학번 전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환상이 있었나요?

IT강국답게 빠르고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검색 속도나 로딩 속도 등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요. Wi-Fi가 길을 갈 때 마다 연결돼 있고 특히나 학교는 항상 연결되어 있어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어요. 보통은 환상은 환상으로 생각해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제 생각보다 훨씬 좋아서 생활부분에서 매우 만족하고 있고 그 점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가장 좋은 점이나 신기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좋았던 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속도가 빠르고 어디서든지 연결이 된다는 점이에요~! 신기했던 점은 중국에서는 미성년자도 술을 먹을 수가 있었는데 여기는 신분증을 검사해서 미성년자는 술을 못 먹게 해서 신기했어요! 성인이 된 후에 한국에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만약에 미성년자로 왔었다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네요.

생활 하면서 불편했던 점은 어떤 부분인가요?

역시 한국말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한국에 오고 싶어서 한국어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도 생활면에서나 학업 면에서나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저에게 한국말을 잘하고 알아듣는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생활면에서도 여러모로 의사소통 정도는 가능하지만 발표를 할 때 어려운 말들이 나오면 머뭇거리는 경향이 있어요.

학교에 와서 알게 된 친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요?

산업디자인학과에 재학 중인 저와 같은 중국 유학생인 조 입니다. 같이 수업 듣고 다니다 보니 친해지게 되었고 저와 성격도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금방금방 친해지게 되었어요. 타 지역에서 서로 같이 의지하면서 지내다 보니 의형제처럼 된 것 같아요. 거의 하루를 조랑 같이 보내는 것 같아요~! 그 친구랑 다니면 기분이 좋더라구요.(웃음)

중원대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나요?

한국말이 아직 익숙치 않고 많이 몰라서 한국의 문화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멀리 가지않고 학교에서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근처 체험전을 견학 하는 것이요. 학교에 온 이후 한 번도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다른 유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다가가서 친해지는 성격이 아니여서 저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 줬으면 좋겠고 친해져서 같이 생활도 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 주고 하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는 다른 유학생들이랑 친해지고 싶어요.(웃음)

정호룡 기자 jhr13135@jwu.ac.kr

제14호 2017년 7월 27일 목요일



도전은 젊음의 특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
– 김두관 국회의원 –

1. '김두관' 하면 섬마을 이장에서 행정자치부 장관까지 오른 자수성가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공한 인생 선배로서 중원대 학생들에게 의원님의 대학생활에 대해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어려운 집안형편 때문에 국민대에 합격했지만 대학등록금 28만 3천원이 없어 결국 진학하지 못하고 2년 동안 농사를 짓다가 경북전문대학에 들어갔고 동아대 정치외교학과에 편입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당시에는 군부 독재시절이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고 시사월간지 외판원 등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군부독재에 항거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위한 시위를 주도했는데 이 때문에 구속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2. 지금 젊은이들은 취업이나 진로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의원님은 29세 젊은 나이에 이장이 되셨는데 어떤 계기로 이장의 길을 택하셨는지?

교도소에 있으면서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우리나라가 바뀌기 위해서는 지역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 지역변혁운동을 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함께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서울에서 함께 하자고 설득했지만 상대적으로 인재가 부족한 지방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해 졸업 후 바로 귀향했습니다. 농민회를 결성하고, 마을이장으로 현안들을 챙기고 '책사랑나눔터' 북카페를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해 일했고, 남해신문을 창간해 직접 취재와 배달까지 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한 덕분에 '군청은 못 믿어도 남해신문은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3. 최근 여러 정치적인 상황으로 대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기대되는 점과 걱정되는 점이 있다면?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고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고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더 많은 청년 정책들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저 역시 청년 일자리 문제나 군복무 제도, 18세 선거권 등 청년을 위한 정책들을 고민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더 노력해야겠지만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정치 혐오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4.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고, 이루고 싶은 정치적 꿈은 무엇인지요?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어린 마음으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꿈은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 한반도 북쪽 끝 함경북도 온성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신북방경제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강대국으로 우뚝 서고, 우리 청년들이 부산에서 유럽행 열차를 타고 배낭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5. 마지막으로 중원대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중원대 학생 여러분. 늘 도전하십시오. 도전은 젊음의 특권입니다. 제가 오늘날 부족하지만 이렇게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남들과 다른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흙수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기성세대로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 죄송하고, 또 그렇기에 책임을 다해 여러분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늘 꿈을 위해 도전하는 멋진 청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학 기자 jjh7689@jwu.ac.kr

주목 신설학과 탐방!



말산업융합학과

Q '말산업융합학과'는 어떤 학과인가요?

말산업융합학과는 말(馬)산업을 바탕으로 말운동과학, 재활심리학, 문화컨텐츠학, 승마역학 등을 융합하여 말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말산업은 세계적으로 '블루오션'으로 통합니다. 국내에서도 말산업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써 지난 2011년 말산업 육성법이 제정·공포된 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말 산업 관련 인력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 4년제 대학교 중 유일하게 중원대학교에서 신설하였습니다.

Q 본과의 교과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1. 2학년에는 말산업의 기초, 승마역학, 장제, 조련 및 마필관리, 재활승마 등의 체계적인 지식을 함양하고 3, 4학년에는 현장실습 중심으로 국내를 비롯하여 해외 산학협력 공동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Q 본과 교과과정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본과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개의 세부전공분야로 나누어 전문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말산업융합전공**
  말산업과학, 운동공학, 용품제조학, 문화컨텐츠(마상무예, 공연기획 등)
- **승마·재활심리전공**
  전문 지도자(재활승마지도사, 스포츠지도사, 경기지도자, 승마지도사)를 양성하고 국가자격증 취득을 기본으로 해외 대학과의 기술교류 및 복수학위 취득
- **조련·마필관리전공**
  경주마, 승용마를 조련시킬 수 있는 능력 배양과 마필을 관리하는 기술과 노하우를 배우며 국가자격증을 취득함과 동시에 해외 자매대학과의 현장실습 및 유학을 알선
- **장제전공**
  대학 교과과정을 통하여 이론 및 장제실습, 현장실습, 해외 장제교육센터로의 교육 및 유학을 알선하여 장제사(국가자격증) 관련 국내·외 자격증과 기술을 배우는 전공

Q 본과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본과 졸업 후 진로 등은 다음과 같은 분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 **공기업**
  한국 마사회, 경마장 등
- **대기업**
  삼성, 한화그룹 등 승마센터 관리직(교관, 조련사, 관리사, 장제사 등)
- **해외취업**
  미국, 호주, 일본, 독일 등 해외취업(말산업 융합 분야)
- **취·창업**
  장제사, 각 기업의 부설 연구소, 조교사협회, 승마용품회사, 승마장 설계 및 건설회사, 대한승마협회, 법인단체 등
- **컨텐츠분야**
  공연, 마상무예, 출판, 방송, 언론 등
- **교육분야**
  기술공무원, 연구원, 대학교수, 대학원 진학 등

특히 미국, 호주,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등의 장제교육학교, 조련센터, 생산사육목장 등의 해외연수를 통한 복수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Q 수험생들에게 한마디!



중원대학교는 2018년 3월에 국제대회 규격의 공공승마시설을 개소할 예정으로 있으며, 장제소, 조련·승마센터, 국가자격취득 교육장, 인공수정센터 등이 오픈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말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성적 등 궁금한 부분이나 입학, 취업 등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지방에 있지만 취업에 강한 대학, 각종 복지시설(기숙사, 수영장, 스포츠센터, 골프장, 승마센터 등)이 훌륭한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희 중원대학교에서 수험생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정종학 기자 jjh7689@jwu.ac.kr

우리대학 인기강의



천재들의 혁명

김성희 교수님



1 다른 교양 수업 보다 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데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천재들의 혁명 수업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아마도 학생들에게 자존감을 느끼게 해주는 수업이어서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문화와 사회 구조 안에서 그리고 교육 제도 등에 의해서 수많은 평가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공부해 왔습니다. 수많은 비교 경쟁 속에서 자존감을 상실했습니다. 자존감을 상실한 학생들에게서는 창의적 발상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저는 천재들의 혁명 수업을 시작할 때 학생들에게 자존감을 느끼고 수업에서 자신 있게 창의적 사고를 통해서 자기 생각들을 표현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재들을 공부할 때에 천재들이 모두 다 학교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이 아닌 것을 학생들과 이야기하면서 천재의 조건이 성적이 아닌 창의적 사고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점이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2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나요?

수업은 팀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4명이 한팀이 되어서 한 학기 동안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팀 구성은 여학생과 남학생, 그리고 각각 다른 과와 다른 학년으로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주제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질적인 만남보다는 이질적인 만남에서 창의성의 확대 된다는 유럽 르네상스를 이루어낸 메디치 가문의 철학을 바탕으로 소통과 융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업 중에 핸드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마음대로 활용하여 정보를 얻어서 팀별 발표와 의견 등을 교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수가 정답을 제공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학생들 스스로 그 질문에 답을 찾아보고 고민해 보게 함으로 학생들이 수업 시간 동안에 스스로 창의적인 답을 찾을 수 있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학생 계신가요?

네, 학기마다 한두 명씩 기억에 남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 중에서 특히나 한 학생은 제 수업을 재수강 하겠다 해서 이유를 물어보니 창의적 교육 방식에 처음에 너무 낯설어서 어려웠지만 한 번 더 들으면 내성적인 자기 성격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고백을 한 학생입니다. 그런 용기를 내어 준 그 학생에게 고마웠고 교수로서 기분 좋았습니다.

4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수업에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나요?

즐겁게 수업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창의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점수에 너무 신경 쓰면 안될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해서 자기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를 뿐임을 인정하고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소통이 가능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독창적인 의견들이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27일 목요일

"천재들의 혁명" 수강생 코멘터리



김수한
(컴퓨터시스템공학과 14학번)

팀별로 발표를 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사교적인 수업이라 좋아요.



안지선
(레저스포츠학과 17학번)

시험도 없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수업이고 저의 의견을 충분히 어필 할 수 있어서 부담이 없는 수업이에요.



박지혜
(간호학과 17학번)

발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팀별로 발표를 함으로써 발표에 대한 부담감도 없어지고 많은 발표 트레이닝이 되었어요.



박용우
(간호학과 17학번)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고 발표 능력을 키울 수 있어서 저 자신에 게 도움이 되고 항상 흥미롭고 재미 있는 수업이에요.

영상으로보는 세계문화유적답사

황연화 교수님



1 다른 교양 수업 보다 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데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학생들과 교수가 함께 과목 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심정으로, 다 같이 연구하고 즐기는 강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다른 수업보다 너무 성적에 치우치지 않고 학생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이 인기가 많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세계의 문화를 수업하다 보면 지루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세계문화유적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하기 힘든 학생들에게 영상시청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수업 내용이 부담스럽지 않고 함께 참여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2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나요?

다양한 미디어와 정보를 활용,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풍습, 직업등을 영상을 활용하여 간접 체험해봅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음악과 절경에 빠져 보기도 하고 신나는 축제의 장으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학생과 교수가 함께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를 짜서 한 학기 동안 발표하는 기회를 주는데 수업에 관한 내용이어도 좋고 또는 자신이 다녀온 해외여행이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 등 세계문화유적이라는 틀을 약간 벗어나서 중간중간에 각 학생들의 해외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거나 여행기를 발표하고 학생들 간 소통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기억에 남는 학생 있으신가요?

한 학기 종강 후 쪽지와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기억에 남는 학생이 많네요. 그래서인지 졸업한 학생들이 보고 싶기도 합니다. 특히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는 학생들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4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수업에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나요?

물론 저의 수업이 다른 교양 수업에 비해 완벽하다고 볼 순 없습니다. 수업시간이 지겨울 수도 재미있을 수도 각각 의견은 다르겠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두고 즐거운 학습의 분위기에 참여해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수업에 대해 문제점이나 보완할 점이 있다면 언제나 들어 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저의 수업을 신청해주신 학생들에게 항상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한종민 기자 kskkytt@jwu.ac.kr

"영상으로보는 세계문화유적답사" 수강생 코멘터리



오종석
(간호학과 17학번)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많은 준비를 해오셔서 짧은 시간 강의지만 듣고 나면 지식이 꽉찬 느낌이 들어요.



지승현
(법무법학과 12학번)

항상 학생들을 배려해주시고 자신의 의견을 어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자신감이 생기는 수업이에요.



백지현
(의약바이오학과 15학번)

다른 나라 문화가 저에게 유익하게 다가오고 하나의 나라만 아니라 여러나라의 문화를 배우다보니 수업이 재미있어요.



이은규
(의약바이오학과 15학번)

교수님께서 한명한명 꼼꼼히 피드백 해주셔서 학생에대한 교수님의 정성이 보이고 항상 교수님에게 감사한 수업이에요.

제14호 2017년 7월 27일 목요일

신나게 세계로 계획없이

요즘 청춘들은 학업에 치이고, 아르바이트에 치이고, 인간관계에 치이죠. 이 모든 걱정을 뒤로하고 힐링을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20대의 꽃인 '여행'입니다. 여행지의 아름다운 풍경과 맛있는 먹거리, 그리고 새로운 인연들은 모든 스트레스와 고민으로부터 해방시켜줍니다. 아직도 해외여행을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있는 중원인들이여, 우리 학우들의 여행기를 듣고 겁먹지 말고 한번 떠나봅시다!

여행 Tip!

① **항공** : 국적항공기, 저가항공기, 직항, 유효기간, 경로에 따라서 여행상품가격이 달라진다. 돈보다 시간이 여유롭다면 경유를 꼭넣고 3개월 이전에 예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naver.com – 최저가항공권 검색

스카이스캐너 앱 – 전 세계 수백만 건의 항공권을 빠르게 분석해 가장 저렴한 가격을 알려준다.

출입국신고서 앱 – 천차만별인 나라별 출입국 정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앱 실행 후 방문하는 국가를 검색하면 비자 발급 여부와 체류 가능 기간을 보여준다.

② **숙박** : 숙박시설 등급, 숙박 위치, 객실조건에 따라서 상품가격이 달라진다. 동급 숙박시설이라고 하여도 위치(관광지 접근성,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Trip ADvisor 나 구글맵에서 Backpacks를 검색 (여기서 Backpacks란 우리나라 GuestHouse 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숙박도 당일보다는 몇일전에 예약해놓으시는 것이 좋다.

③ **음식, 관광지 입장료** : 음식의 품질, 유료 관광지 포함 횟수 등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보통 렌트를 하신다면 현지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요리를 해 드시는 것이 여행경비를 낮추는 지름길이다.

④ **쇼핑/옵션** : 기본적으로 상품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을 제외하여 상품가를 낮추는 경향이 많습니다. 비슷한 상품인데 가격이 초저가라면 현지 옵션과 쇼핑이 많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지에도 충분히 유명한 특산품 같은 것이 존재합니다. 그나라만의 특유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⑤ **환전** : 환전은 인터넷, 모바일로 미리 해둔다. 인터넷 모바일을 이용하면 유리한 환전 우대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공항에서 환전하는데 그러면 최대 20배를 손해볼 수도 있다고 한다.

써니뱅크 환전 앱 – 기존 거래가 없어도 주거래통화 (미달러,유로,엔)는 무조건 90프로, 기타 통화는 30~ 50프로 우대되고 가장 좋은점은 환율이 떨어질때마다 조금씩 환전해서 금고에 넣어놓았다가 필요할 때 찾는 어플이다.

한종민 학생
컴퓨터 시스템공학과 13학번





1. 어떤 여행지를 다녀오셨나요?

저는 군대 동기 3명과 함께 뉴질랜드 남섬으로 다녀왔어요.

2. 이 여행지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군대에 갇혀있는 21개월 동안 답답한 마음을 무엇으로 보상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역 5개월 전부터 전역일이 비슷한 친구 3명과 고민 끝에 최고의 휴양지인 뉴질랜드 남섬으로 21일간의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3. 이 여행지에서 얻게 된 추억이나 기억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군대 동기 3명이 전역하고 떠난 생애 첫 해외 여행이라서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치에 도착하자마자 공기에 한 번 놀라고 밤에 별들에 놀라고 파란색호수,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느 방향으로 운전을 하여도 양떼, 말떼, 소떼, 사슴떼 등 자연과 함께할 수 있구요. 저녁에 별들을 보며 친구들과 했던 맥주 한잔을 잊을 수가 없네요.

4. 다른 여행지와 비교했을 때 이 여행지가 가지는 장점이 무엇인가요?

영어도 못하는 친구들과 셋이 여행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힘든 여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23살 패기 있는 나이에 두려울 것은 하나도 없었죠. 의지와 다르게 공항에서 입국부터 렌트,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았지만 그만큼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었어요. 다른 여행지는 관광을 위해서 개발되고 꾸며 놓은 곳이 많지만 이곳은 자연 그 자체를 훼손하지 않고 인간의 손때가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연 그대로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황현아 학생
사회복지학과 15학번





1. 어떤 여행지를 다녀오셨나요?

여동생과 함께 일본 도쿄에 자유여행으로 다녀왔습니다.

2. 이 여행지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가깝기도 하고 많은 여행지 중에 일본을 제일 좋아합니다. 깨끗한 길거리, 친절함 등을 이유로 들 수 있겠네요. 일본하면 도쿄부터 생각나시죠(웃음) 그 도쿄를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느껴보고 관광해보고 싶어서 선택하였습니다.

3. 이 여행지에서 얻게 된 추억이나 기억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다양한 나라를 가봤지만 자유여행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가서 손짓 몸짓을 동원해서 말을 했던 기억이 나고 매일 밤 다 같이 모여서 편의점에서 먹을 것들과 맥주를 사와 마시면서 내일은 어디에 갈지 이야기 하는 시간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미리 정해놓지 않고 전 날 즉흥적으로 정하는 것이 매력 있었어요(웃음). 그리고 도쿄에서 먹은 스시는 감동 그 자체였어요. 앞으로는 가이드를 통한 여행보다 자유여행을 선택할 것 같네요

4. 다른 여행지와 비교했을 때 이 여행지가 가지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일본 여행지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일본의 배경이라고 생각해요. 어디서 찍든 화보가 되고 어떻게 찍어도 예쁜 배경들이 많아요. 그리고 길거리에 맛있는 먹거리들이 많아요. 특히 하라주쿠 명물 크레페, 아사쿠사의 키비당고를 먹은 것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그리고 아사쿠사의 센소지, 우라야스 만게쿄 온천, 일본에 간 진짜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디즈니씨의 경험은 한국에서 하지 못하는 최고의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은 특히 다른 여행지에 비해 가깝고 한국말을 쓰는 사람과 한국어로 된 표지판들이 많아서 자유여행을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추천 합니다.

박주연 학생
사회복지학과 15학번





1. 어떤 여행지를 다녀오셨나요?

저는 지난겨울에 호주에 다녀왔어요. 오페라 하우스를 볼 수 있는 시드니와 호주의 대표적 휴양지 울런공을 여행했어요.

2. 이 여행지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겨울이 되기 전 부터 호주에 가고 싶단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마침 친구가 호주를 추천해줬어요, 그리고 정신차려보니 티켓팅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죠.(웃음)

3. 이 여행지에서 얻게 된 추억이나 기억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자연친화적이고 다양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나라답게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고 온 것 같아요. 난생 처음 사막에 가서 샌드보드도 타고, 바다에서는 수영도 하고 서핑도 했어요. 호주의 대표적 동물인 캥거루와 코알라도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먹이를 주는 경험도 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라면 아무래도 사진으로만 보던 오페라하우스와 하버브릿지를 두 눈으로 봤다는 일인 것 같아요. 시드니의 낮과 밤의 모습이 확연히 다른 것 같아요. 낮에 보는 시내의 모습도 좋았지만 오페라하우스의 야외 카페에 앉아서 보았던 야경은 훨씬 아름답고 잊히지 않아요.

4. 다른 여행지와 비교했을 때 이 여행지가 가지는 장점이 무엇인가요?

평소에 사진을 잘 찍지 않는데 눈 돌리는 곳곳마다 아름다워서 사진을 찍게 만들었어요. 호주가 가지는 장점이라면 사람을 여유롭게 해주는 곳인 것 같아요. 노천카페에 앉아서 현지 사람들과 얘기하고 해변이나 야경을 보면서 고민이나 걱정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권하연 학생
사회복지학과 15학번





1. 어떤 여행지를 다녀오셨나요?

저는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코타키나발루라는 섬에 3박5일 동안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 이 여행지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성인이 된 이후로 친구들과 함께 매년 방학 때마다 여행을 가고 있어요! 두 번의 방학 중 한 번은 해외로, 한 번은 국내로 다녀오고 있는데 올 겨울에 완벽한 휴양을 테마로 돈도 펑펑 쓰고 즐길 수 있는 건 모두 즐기자! 라는 마음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3. 이 여행지에서 얻게 된 추억이나 기억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가장 기대했던 것은 '씨워킹'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직접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열대어도 보고 밥도 주는 프로그램이어서 더욱 더 기대했던 프로그램이었어요. 친구들에게 멀리 온 만큼 이거 못하는 애 있으면 진짜 한국행 비행기 당장 타라고 할 정도로 자신만만해 하고 있었는데 장비를 차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숨이 막히고 숨을 잘 쉬지 못해서 바로 물 밖으로 나왔어요. 그 후로도 몇 번을 더 시도해봤지만 겁에 질려 결국 씨워킹은 하지 못했어요 ㅠㅠ 정말 아쉬운 기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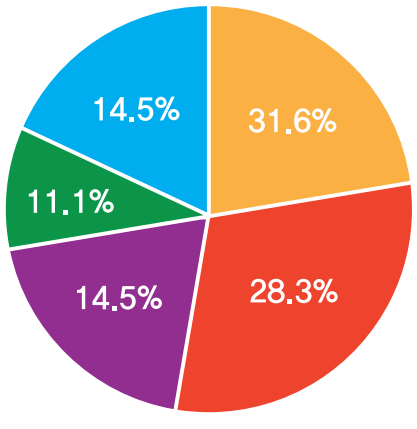
4. 다른 여행지와 비교했을 때 이 여행지가 가지는 장점이 무엇인가요?

먼저 저렴한 물가인 것 같아요! 동남아치고는 물가가 비싸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비싼 편이 아니었어요! 덕분에 충분히 먹고 즐겨도 예산이 남아서 엄청난 폭풍쇼핑을 하고 왔습니다! 또 하나는 현지인분들이 굉장히 착하시고 한국말을 잘 하신다는 점이에요! 한국인 관광객이 많아서인지 현지인분들이 한국말로 흥정을 하고 계시고 '누나 예뻐' 나 '누나 이거 맛있어!' 등 한국말을 굉장히 잘 구사하셔서 영어를 못해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또 현지인 분들이 DJ소다를 아실만큼 한류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K-POP이 나온다거나 한국 가수들 이야기를 해도 말이 통할 정도로 한류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 다시 한 번 한국이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여행이었습니다!

중원인들의 태양을 피하는 방법

중원대 학우들의 여름방학 계획
설문조사 총 253명 응답





중원대 학우 여러분 시험은 잘 보셨고, 성적은 잘 나오셨나요? 기말고사가 끝나면 찾아 올 여름방학. 학우들은 방학동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 2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원인 여름방학 계획'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한종민기자 kskkytt@jwu.ac.kr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중원대 학우들은 '취업준비'와 '아르바이트'를 가장 중요한 방학계획으로 꼽았습니다. 학년을 떠나 취업준비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차지해 대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부담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대학생 여름방학 계획에 국토대장정이나 배낭여행, 농활 등 대학생의 느낌이 나는 계획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요즘은 나이와 학년에 상관없이 방학 때는 무조건 '취업준비'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대학생들의 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응답률이 높은 계획은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비싼 등록금에 대한 부담감도 모자라 용돈과 학원비 마련을 위해 해야 한다는 대학생들의 웃픈 현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스펙을 위해 인턴활동, 봉사활동, 현장실습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예전의 대학생의 로망인 배낭여행, 해외여행 등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인 듯합니다. 어학점수, 학비마련, 인턴활동 등 요즘 대학생들은 일반 사회인들보다 더 치열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원인 여러분! 대학 생활 중에서도 방학은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취업도 좋고, 아르바이트도 좋지만 가끔은 여유를 가지고 여행도 해보고 또한 주변의 이웃도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중원인의 알찬 여름방학을 바라며 다음 학기에는 더 밝은 미소로 만나요!

제14호 2017년 7월 27일 목요일

나 혼자 산다

항공정비학과 17학번 ○○○학생

AM. 7시 기숙사 - 기상



기숙사는 여럿이 사용하기 때문에 수업에 늦지 않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수업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말년 병장처럼 습관이 되어 나름 베테랑이죠! 기상 후 간단히 기지개를 켜는 것은 침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만의 잠 깨는 노하우에요!

AM. 10시 실습실 - 정비 실습



이론 수업도 중요하지만 저희 항공정비학과 같은 경우는 실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론 수업을 게을리 해도 안 된다는 사실! 이론 수업으로 기초를 다지고 그 기초를 바탕으로 실습에 임하면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실습 때만큼은 집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배가 돼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친구들이 정비공 같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나요?

PM. 1시 학생식당 - 점심 식사



돌도 씹어 먹을 나이에 끼니를 거른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저는 한식을 좋아해서 주로 학생식당에서 먹습니다. 싼 값에 5첩 반상을 즐길 수 있답니다. 영양가 넘치는 학식을 먹고 나니 제 혈색이 더 좋아 보이지 않나요?

PM. 5시 스포츠센터 - 운동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초콜릿 복근을 꿈꾸지 않나요? 저는 중원대의 휴잭맨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매일 수업이 끝나면 기숙사에 들렸다가 바로 헬스장으로 향해 운동을 해요. 몸도 좋아지고 건강도 챙기고 1석2조 인 것 같아요~!

PM. 7시 아르바이트



대학생이라면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어야겠죠? 적어도 생활비 정도는 스스로 벌고 싶은 생각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어서 틈틈이 알바를 하고 있어요. 일본식 전문 식당이고 사장님도 좋고 시설도 깔끔해서 일하기엔 딱 좋은 것 같아요! 물론 학업과 병행을 하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통장에 찍히는 숫자들이 저를 기쁘게 하네요.

PM. 11시 기숙사 - 공부



오늘 배운 것들을 조금이라도 복습하기 위해 점호 후 조용할 때 공부를 하고 잡니다! 열람실도 좋지만 기숙사 같이 적당한 백색소음이 있는 곳이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공부가 잘 안 되는 날은 소환사의 협곡으로 떠나기도 한답니다.(웃음)

정호룡 기자 jhr13135@jwu.ac.kr

항공서비스학과 17학번 김가희 학생

AM. 7시 기숙사 - Appearance (메이크업)



실습수업이 있는 날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 속칭 '어피'라 하는 메이크업과 헤어세팅을 합니다. 외모도 마음가짐도 단정히 하는 아주 신성한 시간이죠! 오늘도 헤어스프레이 한 통 다 쓴건 비밀-★

AM. 10시 워킹 수업

바른 걸음걸이는 승무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예쁘고 당당한 걸음걸이를 위해 오늘도 힘찬 워킹 연습! 고개를 들고



앞을 바라보며 선을 따라 바르게 걸어갑니다! 이제 점점 승무원 포스가 느껴지지 않나요?

PM. 12시 점심 식사



식단관리도 승무원을 준비하는 저희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죠! 점심식사를 다이어트 식품으로 해결하곤 합니다. 오늘은 폭포수 옆 정자에서 따사로운 햇볕을 받으며 맛있는 시리얼로 점심을 먹고 있어요. 힐링하는 시간이죠!

PM. 2시 실습실 - 기내서비스 실습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전과 같은 마음으로 기내서비스 실습을 진행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땅콩은 안 됩니다^^'

PM. 4시 실습실 - 이미지 메이킹



승무원의 얼굴에는 미소가 만연하죠! 미소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힘들겠지만 승객들에게 항상 밝은 에너지를 드리기 위해 오늘도 거울 앞에서 환하게 웃어봅니다! 스마일(^^)

PM.8시 스포츠센터 - 체력단련

승무원에겐 신체조건도 큰 점수가 되니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몸매관리를 위한 운동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꾸준



하게 해줘야 합니다. 식단관리만 하고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의미 없겠죠?

PM.11시30분 기숙사 - 공부

점호가 끝난 후 취침하기 전 과제와 영



어공부를 합니다. 영어는 글로벌 시대에 발 맞춰 준비해야 할 필수조건이며 특히 승무원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기본 스펙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않을거예요~ Good night-★

정종학 기자
jjh7689@jwu.ac.kr

경찰행정학과 15학번 임채은

AM. 6시 30분 체력훈련 및 유도연습



매주 화요일, 수요일은 학과생 대다수가 아침 일찍 모여 체력훈련을 한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유도시합을 앞두고 있어 체력훈련 이후에 따로 유도연습을 하고 있어요! 선후배, 동기들이 모여 함께 호흡하고 땀을 흘리는 것이 엄청난 에너지를 만드는 것 같아 좋습니다.

AM. 11시 체포술 수업

호신술과 유도기본기 모두 배울 수 있는 과목이랍니다. 원체 제가 유도를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해서 가장 재미있게 듣는 수업이에요!



PM. 1시 점심 식사



특히 오늘처럼 '체포술' 수업을 듣는 날은 무진장 배고파요 학교 밥으로도 모자라 계란에 우유까지! 든든하게 먹어둬야 이따 고시원가서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거든요.(웃음)

PM. 3시 고시원



고시원이요? 사실 '고시원' 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무거워요, 무겁지요. 그래도 멀리할 수는 없는 곳이기에 조금 생각을 바꿔놓고 보니 또 그런대로 부담이 덜 해요. 저에게 고시원은 단순히 공부를 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공방' 이라고 할까요? '꿈 공방' 이요. 머릿속에 무언가를 먼저 생각해놓고 계속 깎고 빚어가면서 결국에는 실체로 만들어내잖아요. 상상만 해도 가슴 뜨거워지는 미래의 제 모습이 언젠가는 현실이 되리라 믿고 이곳 고시원에서 열심히 꿈을 조각하고 있답니다.

PM. 10시 취침 전 마무리 공부



고시원에서 마저 끝내지 못한 공부를 기숙사와서 마무리! 밤에 기숙사에 와서 풀어지지 않도록, 샤워하기 전에 바로 책상 앞에 앉아 이렇게 복습한답니다.

Ending

운동이든 공부든 무엇 하나 소홀히 하지 않는 저의 하루 일과, 어땠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람차게 보냈으니 주말엔 집에 올라가서 친구도 만나고 가족이랑 오붓한 시간도 보내며 재충전을 한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질 경찰이 되는 그 날 까지!!!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15학번 임채은, 지켜봐주세요

임상병리학과 15학번 이한희 학생

AM. 7시 등교 준비



안녕하세요! 임상병리학과 이한희 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저의 하루를 엿 보실까요? 저는 증평에서 통학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한답니다. 자 그럼 이제 학교로 떠나볼까요? 출발~

AM. 10시 혈액학 채혈 시험

오늘은 혈액학 수업 채혈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상당히 긴장 되네요;; 한 치의 오차 없이 바늘을 꽂아야 한답니다! 그래도 어제 연습을 많이 해서 오늘은 자신 있어요! 성적도 잘 나오면 금상첨화-★



PM. 12시 점심 식사



시험의 긴장감이 풀리니 허기가 몰려오네요. 요즘 다이어트중이긴해도 오후 수업을 위해 간단하게 배를 채워두려고 합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카페테리아는 콜팝이죠 ^.~(찡긋)

PM. 2시~3시

혈액학 수업중
듀크법을 위해 피를 뽑는 모습



이번 수업은 출혈 시간을 측정을 위한 실습을 위해 채혈을 한답니다. 항상 피를 뽑는 입장에서 실습대상이 되니 손에 땀이 나네요;; 모든 실습, 실험은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이런 경험이 저를 훌륭한 임상병리사로 만들어 주겠죠?

PM. 3시~4시

망상적혈구 염색
실험, 적혈구 염색 후 현미경 관찰



현미경으로 뽑은 피에서 적혈구를 관찰하는 모습입니다. 항상 장난기 많고 천진난만한 성격이지만 실험 시간에는 실험에 진지하게 임해야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좋은 임상병리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망상적혈구에 염색시약을 넣은 실험을 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번거로울지 몰라도 열심히 실험을 하여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면 더 좋겠네요.

PM. 6시 산책

수업이 끝난 후 귀가하기 전 친구들과 오늘 하루를 정리하며 운동삼아 산책을 하곤 합니다. 바쁜 하루일과중에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이렇게 힐링하면서 재충전하는 시간도 필요하겠죠? 저는 하루 중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이 가장 좋답니다.



PM. 8시 귀가

드디어 오늘 하루일과가 끝났습니다. 오늘 하루도 학교에서 많은 수업과 실험 등 지치는 하루였고 많은 과제가 있지만 일단 학교를 벗어난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하네요. 하지만 집에 가서 과제를 또 해야 한다는 점ㅠㅠ

한종민기자 kskkytt@jwu.ac.kr



레저스포츠학과 17학번 축구부 김건곤 학생

AM.8시 통학버스 - 등교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운동을 하고 통학버스에서 부족한 잠을 보충하며 등교를 합니다. 오늘은 햇살이 따사로워 잠이 솔솔 왔지만 학교에 도착하니 눈이 번쩍 떠지네요.

AM. 11시 스포츠센터 - 웨이트 트레이닝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틈틈이 체력관리를 위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합니다. 매주 리그 경기가 있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자기관리를 하고 있어요.

PM. 2시 강의실 - 체육사수업



점심으로 배를 든든히 채웠으니 수업시간에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배도 부르고 교실도 따뜻해서 그런지 졸음이 몰려오지만 꾹 참고 열심히 수업을 듣습니다. 공부도 소홀히 하면 안 되니까요!



(*리그경기가 있는 날은 숙소에서 경기시간에 맞게 출발해요. 학교수업을 빠져서 너무 아쉽지만 경기를 위해 열심히 준비합니다.)

PM. 8시 숙소 - 하교



훈련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숙소로 돌아갑니다. 숙소에서 조금의 휴식을 취하고 저녁에는 개인훈련을 합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스스로 보완해야하죠. 하루 종일 운동을 해서 너무 피곤하네요. 내일 새벽운동을 위해 일찍 자야겠어요. 안녕~

박수현 기자 qkrtngus2015@jwu.ac.kr

AM.9시 학교 운동장 - 야외 실기수업



레저스포츠학과는 야외에서 하는 실기수업이 많습니다. 새벽에도 운동을 하고 왔지만 학교에서 운동을 한다니 건강해 지는 그런 느낌. 이외에도 기초체력수업 등을 야외에서 진행한답니다.

PM. 12시 카페테리아 - 점심식사



점심은 카페테리아에서 자주 먹어요. 종류도 많고 맛도 있어요. 저는 분식코너를 정말 좋아합니다. 값도 싸고 종류도 정말 많아요! 금요일에는 짜장 떡볶이가 나와서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PM. 4시 학교 운동장 - 축구부 단체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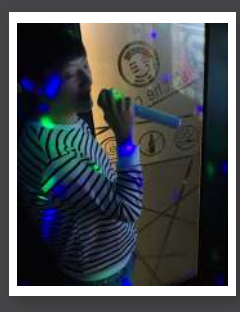
4시부터는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부 단체훈련을 합니다. 리그경기가 매주 있어 항상 경기를 위해 열심히 훈련을 받아요. 좋은 경기 성적을 위해 으쌰으쌰!!

SINGLE LIFE

프로 혼자러 혼자서 이것 까지 해봤다!

요즘 혼술, 혼밥, 1코노미 등 혼자서 하는 일들을 일컫는 신조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트렌드에 맞게 혼자족들을 위한 식당, 술집 등도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 정호룡 기자가 직접 체험하고 '샤이레벨 (shy level)' 을 정리해봤습니다.

레벨 1 혼자서 노래방 가기



노래는 마음껏 하고 싶은데 혼자 가자니 가격 부담스러워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코인노래방이 혜성처럼 등장! 혼자서 부르기 딱 좋은 크기의 방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 부를 수 있고 다른 사람 눈치 안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럿이 오는 것 보다 혼자 오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합니다.

레벨 2 혼자 여행



요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저도 가끔씩 혼자서 여행을 가곤 했는데 친구나 가족들이랑 같이 가는 것과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여행은 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 일정을 맞출 필요도 없고 오롯이 혼자서 하고 싶은 것들을 만끽할 수 있어서 홀로 떠나는 여행의 매력입니다.



하 : 일반 음식점



중 : 패스트 푸드



상 : 고기집

레벨 3 혼자서 밥 먹기(혼밥)

혼밥은 요즘 들어서 많이 일반화 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혼밥!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혼밥에서도 여러 단계가 나누어질 정도로 편차가 심해요! 그래서 혼밥은 순위 안에 순위! 혼밥 안에서도 간단하게 난이도(상,중,하)를 매겨 봤습니다!

SELF INTERIOR

수업이 끝나고 쉬는 공간 기숙사 지저분하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겠죠? 방을 꾸미고 싶지만 단체생활이기도 하고 방도 좁아 인테리어를 하기는 어렵게만 느껴는 상황! 하지만 이 좁은 방도 잘 활용한다면 쏘 스윗~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인테리어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불 밖은 위험해~ 방이 좋아 집순이가 될 것만 같은 기숙사 셀프 인테리어!!팔로팔로미~

1 첫 번째 방법, 포스터를 이용한 방법

인테리어를 하기에는 돈 없는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크죠. 하지만 포스터 한 장만 있으면 인테리어 끝~!! 영화를 보고 손에 쥐여진 포스터, 뒹굴고 있는 잡지에서, 집에 모셔둔 연예인 포스터까지 포스터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타일의 포스터를 직접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답니다. 포스터 한 장으로 쉽게 원하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2 두 번째 방법, 전구 &무드등 이용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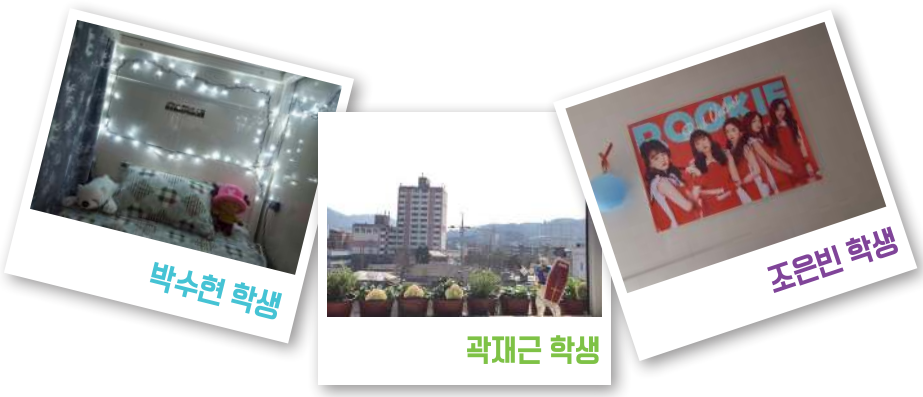
기숙사는 12시가 지나면 모든 불이 꺼지죠. 이때 전구의 전원을 ON!! 분위기 있는 방으로 변신합니다. “전구사기 너무 아까워요”하시는 분들은 가랜드를 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종이와 실만 있다면 원하는 스타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너무 흔한 것이 싫다. 나는 더 독특한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 유행하는 네온사인에 도전해 보세요. 인터넷에서도 손쉽게 제작키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3 세 번째, 식물을 이용한 방법

다육식물을 키워보세요. 다육식물은 키위기 쉬운 식물로, 건조해도 잘 자라서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고 병과 해충도 적어 방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입니다. 밤에는 음이온을 발생시켜 숙면에 도움을 주고 전자파를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어 침대나 책상에 두면 좋습니다.

4 네 번째, 침구를 이용한 방법

좁은 기숙사에서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침대!! 인테리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답니다. 다들 기숙사에 들어 올 때 예쁜 이불 하나씩 챙겨오죠? 이불의 디자인과 색상에 따라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다는 점!! 이불하나만 잘 골라도 분위기뿐만 아니라 침대가 나를 부른다~ 들어가자마자 폭~ 누워버릴 것 만 같은 방이 된답니다.



이렇게 기숙사 꾸미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아무리 인테리어를 잘 한다 해도 방이 지저분하다면 소용이 없겠죠? 정리정돈만 잘 해도 좋은 인테리어가 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배운 팁으로 저희가 직접 방을 꾸며보았습니다.

첫 번째 집순이 바로 제 2층 침대를 응용하여 담요로 커튼을 만들고 전구와 친구들 사진으로 방을 아늑하고 아기자기하고 깔끔하게 꾸몄습니다. 친구들과 파자마파티를 할 것 같은 방입니다. 파뤼 투나잇~!!

두 번째 집돌이 산업디자인학과 16학번 곽재근 학생. 따스하게 빛이 들어오는 창가에 허브가 나란히 광합성을 하고 있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싱그럽게 아침인사를 할 것만 같아요. 여러분의 기숙사 인테리어를 공모 받습니다. 공모하신 분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JR 페이스북 메시지로 신청해주세요~!!

박수현 기자 qkrtngus2015@jwu.ac.kr

JWU

포토존을 소개합니다.

셀카를 좋아하는 사람, 셀카를 못 찍는 셀카고자도 이곳에 가면 분위기 있는 셀기꾼*이 될 수 있다!!
오늘의 프로필 사진은 여기에서! 오늘은 프사 바꾸는 날~ 중원대의 포토존에서 인생 샷을 남기러 가볼까요?
*신조어 셀기꾼 : 셀카 사기꾼

[모델협조 산업디자인학과 12학번 이서기]



첫 번째 식물원

중원대의 만인의 포토존!! 여기에 갔다!! 하면 누구나 인생사진은 남기는 곳!! 바로 식물원인데요. 다른 식물원들과 달리 식물원에 설치된 유리들과 많은 식물들이 조화를 이뤄 인생사진 남길 수 있는 하나의 공간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업이 없는 시간에 산책도 하고 힐링을 하는 장소이기도한데요. 이곳에 들어가면 어디서 어떻게 찍어도 인생사진! 카메라셔터를 계속 누르게 되어 나올 수 없는 마성의 공간입니다. 아직도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가서 인생사진 남겨보세요.



두 번째 로비 거울

지나가다가 한번쯤은 찍어봤을 사진!! 본관 층층마다 설치되어 있는 거울!! 수업가기 전에 한번 씩은 들여다보고 가시죠? 그곳이 바로 포토존~!! 수업을 기다리기 지루한 시간 거울을 보며 고춧가루 끼었는지 확인도 하시고 시간이 남았네? 그럼 사진 한 장 어떠세요? 오늘 예쁘게 꾸미셨는데 사진을 안 찍고 지나칠 수 없겠죠. 오늘의 프사는 여기서!! “나는 오늘 초췌해서 사진은 못 찍겠구먼” 괜찮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찍으면 느낌 있는 사진완성!! 느낌적인 느낌~♬



세 번째 박물관

여기는 “내 마음 속에 저장” 나만 알고 싶은 그런 공간 바로 박물관입니다!! 중원대 학생이라면 한번쯤은 가보는 곳이죠. 마치 넓은 미로 같은 박물관, 너무 넓어서 사진 찍을 공간도 많다는 점~ 박물관 구경도 하면서 사진도 찍어보세요. 조명도 좋고 작품들도 너무 멋있어서 사진도 잘 나온답니다. 아직도 가보지 못했다면 학생증 들고 빨리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운동장

날씨 좋은날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날 여기가 딱 이죠. 운동장!! 맑은 하늘과 잔디, 자연에서 비춰주는 조명은 최고의 궁합이지 않을까 싶어요. 학교 운동장에는 정말 많은 포토존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날씨 좋은 날 산책도 하면서 운동장에서 사진을 찍어 보세요. 폭포, 정자, 연못 동상, 놀이터 등 정말 많이 있답니다. 날씨 좋은 날 광합성도 하면서 예쁜 사진을 많이 남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뜨거운 태양을 피해 잠깐 정자에서 쉬면서 사진 찍어요.

제14호 2017년 7월 27일 목요일

덕후의 발견

혹시 '덕후 시대'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흔히 하나의 일에 몰두하는 것을 덕후라고 하는데요? 요즘 이들에 의해 무너지는 스펙 사회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중원대의 덕후들을 찾아 인터뷰 해보았습니다.



포켓몬 덕후

컴퓨터시스템공학과 4학년
12학번 한병권



1.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원대학교 컴퓨터시스템공학과 4학년 12학번 한병권 입니다. 이번에 포켓몬 덕후 대표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포켓몬 덕후 중에서 자신 있게 내가 포켓몬에 대해 제일 잘 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 오랜 시간 포켓몬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일반사람들 보다 포켓몬에 대해 잘 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2. 포켓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언제인지?



어릴 적부터 관심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건 고등학생 때입니다. 고등학교 친구가 학교에 포켓몬을 따로 키울 수 있는 포켓워커를 가져왔고 거기에 흥미를 가진 저는 포켓몬 게임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포켓워커는 다른 사람과 동일한 포켓몬을 키워도 결과적으로는 전혀 다른 나만의 포켓몬이 된다는 그 점이 당시 저에게 있어 가장 큰 매력 포인트였던 것 같네요.

3. 포켓몬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을 텐데 자신만의 프라이드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게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인 것 같습니다. 인간과 동물은 다르고 같은 인간이라도 잘 하는 것과 못 하는 것 등등 많은 차이점이 있듯이 이 점이 포켓몬 게임에 녹아있어요. 이 시스템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가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네요.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도 이슈가 되었던 포켓몬 GO에도 이런 기능이 어느 정도 녹아있으니 포켓몬 GO를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 특별히 아끼는 애장품이 있는지? 그 이유는?



포켓몬스터 스페셜이라는 만화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2권이 저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애장품이 아닐까 싶네요. 어릴 적 부모님이 사주셨는데 저에게 있어 첫 만화책 이였던 점이 큰 이유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5. 가장 힘들게 모은 수집품은?

게임 속 특별한 포켓몬 (환상의 포켓몬, 이벤트 포켓몬)입니다. 주로 서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지 않다보니 시간과 돈을 들여 서울까지 직접 가서 잡아야하기 때문에 힘들게 포켓몬을 모았죠.

7. 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고등학생시절 구하지 못한 피카츄색 피츄와 뾰족귀 피츄를 구하고 싶네요. 이제 더는 이벤트나 행사로 구할 수 없고 저 피츄들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양도받지 않는 이상 얻을 수 없기에 더욱더 가지고 싶습니다.

8. 가장 좋아하는 포켓몬은?



2017년 현재 포켓몬의 수는 800마리가 넘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한 마리 골라보자면 텅구리를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외형이 제 취향을 저격하였고 제 게임 플레이 스타일상 무조건 강한 포켓몬으로 플레이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약한 포켓몬을 플레이하기를 좋아하는데 텅구리 역시 그렇게 강한 포켓몬이 아니고 게임 내에서 자신만의 전용기술과 전용아이템이 있다는 차별성 때문에 좋아합니다.

9. 다른 덕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뭔가 '덕후'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시선들을 신경 쓰지 않고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나올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0. 본인의 꿈은 무엇인가요?

저의 꿈은 게임 크리에이터(Creator)인데요. 크리에이터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영화감독, 작가, 만화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임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와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림이나 글에 손재주가 없어서 할 줄 아는 것은 프로그래밍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목표는 게임 개발자입니다. 그 후에 저의 꿈을 펼칠 생각입니다.

정호룡 기자 jhr13135@jwu.ac.kr

메이크업 덕후

산업디자인학과
15학번 임상하



커버력이 높고 건조하지 않은 쿠션 — 미샤의 텐션팩트, 마몽드의 하이 커버 리퀴드 쿠션(미샤의 탠션팩트보다 더 촉촉한 쿠션)

5년 이상 찾아다녔던 지속력 갑!! — 삐아 아이라이너, 더샘 스키니 아이라이너

밥을 먹어도 지워지 않는 틴트 — 패리페라의 잉크라인 (봄 신상인 에어리벨벳 5가지 컬러들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스카라 — 키스미 마스카라(강추), 에뛰드의 컬픽스 마스카라(강추)

픽서 — 투쿨포스쿨 픽서

메이크업을 시작한 계기가 있다면?

저는 중학생때 포니라는 뷰티 블로거를 우연히 알게 되어 메이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도 포니를 좋아하고 메이크업을 하면서 정샘물이라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메이크업을 하는 이유 첫 번째 누구나 공감할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이 아름다워지기 때문입니다. 메이크업 전과 후 비교할 수 없죠, 아름다움이 배가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러 가지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메이크업으로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고 가끔은 색다른 메이크업을 하며 재미를 느낍니다.

메이크업 초보자들에게 알려주는 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초보자들은 세가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피부타입 알기! 메이크업 초보자들은 남들이 좋다는 것을 막 사서 쓰기보다는 본인의 피부톤이나 생김새, 피부타입을 먼저 파악하고 메이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본인의 얼굴을 연구하고 관련된 영상이나 정보를 최대한 많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프라이머 사용! 평소에 메이크업이 잘 무너지시는 분들은 꼭 프라이머를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프라이머도 종류가 다양한데요.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자신에게 맞는 프라이머를 사용한다면 메이크업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메이크업 픽서를 뿌려 메이크업을 고정시켜주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메이크업이 완성됩니다.

메이크업이란?

메이크업은 저에게 변신입니다. 메이크업은 무한 변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변신 속에서 발견하는 '나' 색다른 나의 모습을 찾고 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꿈이 무엇인가요?

메이크업을 하면서 생긴 소소한 꿈이 있는데 유튜브를 해보고 싶어요. 유튜브를 일로 하기 보다는 취미생활로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유튜버가 된다면 많이 봐주세요.^^

중원대 메니아들에게 한마디

우리 같이 즐메(즐거운 메이크업)해요!!

박수현 기자 qkrtngus2015@jwu.ac.kr



JWU 커플템

20대의 젊은 청춘들이 모여 있는 대학 캠퍼스는 말 그대로 연애의 장입니다. 수많은 커플들이 있지만 자신들만의 특별한 추억들 혹은 커플아이템들이 있을 텐데요. JR이 우리학교 캠퍼스커플들만의 특별한 커플템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A 커플 - 직접만든 커플링, 팔찌

흔하디 흔한 커플링과 팔찌이지만 직접 만들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남들 다하는 돈주고 사는 반지보다는 직접 만들면 더 애착도 생기고 사랑도 더 커질거 같아요! 요즘은 반지를 만들 수 있는 공방이 많으니까 한 번 도전해보길 추천합니다! 팔찌는 부산 감천문화마을에서 만들었습니다!



2 B 커플 - 캠퍼스 커플룩

역시 캠퍼스커플이라면 캠퍼스 커플룩이 짱이죠! 심플한 듯 시크한 블랙&화이트 컨셉의 커플템들로 '우리 커플이요~~'하고 솔로들 염장 지르는 듯한 느낌을 뿜뿜!! 왠지 커플템만 봐도 선남선녀일 것 같은 같은 건 기분탓인가...?



3 C 커플 - 커플 근로

신박한 커플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커플의 등장이네요. 학생들이 생활비나 학비를 벌기 위해 하는 국가근로를 같이 하는 커플입니다. 하루 종일 일을 같이 하면서 꽁냥꽁냥하기 좋을 것 같아요! 싸워도 계속 같이 일을 해야 하니까 화해도 금방 하겠죠? 데이트비용 걱정도 없겠네요!!

패션의 완성은 과잠

대학에 오면 꼭 한 번씩은 입어보는 옷이 바로 과잠이죠! 과잠은 새내기에겐 설렘 그 자체이며 재학생들에겐 소속감의 상징입니다. 단순한 옷을 넘어 이제는 하나의 대학문화로 자리 잡은 과잠! 저희 JR이 우리학교 수많은 학과 중 5개 학과의 학생들을 만나 과잠을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의생명과학과 17학번 장주봉 학생

기존의 야구점퍼 스타일의 과잠들과는 다른 항공점퍼 스타일의 과잠입니다. 심플한 검정색의 소매와 깃 또한 새로운 모습이네요. 재질도 비교적 얇아 봄에도 무리 없이 착용 가능해 보이고 다운톤의 색상이 시크한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지퍼 부분 디자인 역시 눈에 띄네요. 굉장히 트렌디한 과잠이라 탐나네요...



산업디자인학과 17학번 이나현 학생

조금은 생소한 패딩스타일의 산업디자인학과의 과잠입니다. 디자인과 답게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한 여러 후보 중 선택된 과잠인 만큼 학생들의 애착이 클 것 같아요. 기존 과잠의 틀을 과감하게 깨버린 패딩스타일이라 말 안하면 과잠인지 모르겠어요~ 좀 더워 보이는 건 함정ㅠㅠ



보건행정학과 17학번 전혜원 학생

머스타드색과 흰색의 조화가 잘 어울리는 과잠 입니다. 흰색 글자에는 검은색 테두리가 있어 눈에 잘 띄네요. 청바지와의 조화도 괜찮아 보이네요. 수줍어하는 새내기의 이미지에 잘 어울립니다^^ 머스타드소스 흘려도 아무도 모를 것 같네요.



항공서비스학과 17학번 김진호 학생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의 단정한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순백의 과잠입니다. 멀리서 봐도 빛날 정도로 새하얗습니다. 과잠을 입고 있는 학생의 마음까지 깨끗할 것 같아요! 김칫국물 흘리면 큰일 나겠군요.



사회복지학과 15학번 박주연, 황현아, 권하연 학생

장난기 넘치는 3총사들이 입고 있는 옷은 사회복지학과 과잠입니다. 블랙&화이트의 조화와 레드컬러로 포인트까지 적절하게 들어가 어느 옷에나 무난하게 코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깜찍한 포즈를 취해 달라고 했더니 저런 포즈를...

당신의 작은 정성이 중원대학교의 미래를 변화시킵니다.

– 여러분이 주신 기금은 학교 전략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중원대학교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주신 기부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기부참여 방법

1. 현금 즉납

2. 무통장 입금 | 아래의 발전기금 계좌로 직접 입금해주세요.
농협 301–0018–0977–31(중원대학교 발전기금), 국민 615801–04–207855(중원대학교 장학기금),
국민 615801–04–211393(중원대학교 발전기금)

3. 자동이체 신청 | 매달 약정하신 금액이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신청전화 043–830–8076 (*문의처로 연락하여 반드시 입금 확인)

■ **문의처 |** 전화 (043)830–8076 (중원대학교 발전기금 관리팀) / 팩스 (043)830–8079

2017년 중원대학교 발전기금 기부내역

※발전기금 명단은 '가나다'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2017. 03.01~ 2017.06.30

번호	성 명	기부형태	기부금액	번호	성 명	기부형태	기부금액
1	강필순	현금	660,000	6	김 택	현금	1,110,520
2	길용호(일반인)	현금	840,000	7	서울더블유치과병원	현금	8,000,000
3	김무진	현금	1,000,000	8	전홍진(일반인)	현금	1000,000
4	김상호(일반인)	현금	5,000,000	9	이종필(교직원)	현금	2,000,000
5	김영숙(일반인)	현금	1,300,000				

★50만원 이상 납부자만 금액을 명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약정금액 자동이체 납부자

강학래,	김은정,	김화복,	박금숙,	안성찬,	이기용,	이응세,	이현주,	전춘련,	최상범,	황금진,
권정현,	김정규,	김 훈,	박안숙,	안해수,	이덕우,	이인철,	이형우,	정종찬,	최 천,	황희정,
권종원,	김종도,	김훈,	박혜정,	오석창,	이상열,	이종성,	이혜경,	조용태,	한기봉,	
김갑선,	김중휘,	노예진,	서영호,	위정화,	이상주,	이주연,	이혜경,	조용호,	한형서,	
김선두,	김지선,	나 욱,	손정화,	유현승,	이상호,	이주엽,	이홍찬,	조운영,	홍가표,	
김수대,	김지현,	도재희,	송은일,	윤준식,	이숙연,	이지현,	임정완,	지충일,	홍기묵,	
김용진,	김 진,	류다영,	송재두,	이광석,	이승현,	이헌준,	임주영,	채기욱,	홍민주,	
김유신,	김형탁,	맹선향,	안석환,	이근우,	이연숙,	이현정,	전종현,	채수용,	홍영숙,	

★50만원 이상 납부자만 금액을 명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